

책읽는곰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 우리 가족 낚치사건

책놀이책



주소 0397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74 102호

전화 02.332.2672-3 팩스 02.338.2672

전자우편 bear@bearbooks.co.kr

SNS twitter.com/bearbook





## 우리 가족 납치 사건

김고은 글 · 그림 | 책읽는곰 펴냄

2017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 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소년한국일보 우수 어린이 도서

아침 7시 30분, 아빠 전일만 씨가 일해역 3-1 승강장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떠서 겨우 세수만 하고 나왔는지,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쾅합니다. 보나 마나 아침도 걸렸겠지요. 이른 시간인데도 전철역은 아빠처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8시 정각, 엄마 나성실 씨는 아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화장을 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히 끝낸 뒤 집을 나섭니다.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을 해치우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가까워서 다행이지요.

9시 30분, 딸 전진해는 칠판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교시인데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학원 수업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아야겠지요. 아빠 엄마는 일 때문에 저녁 늦게나 오실 테니까요.

이 가족의 모습, 어쩐지 익숙하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에 나동그라진 순간, 엄마가 회사까지 총알처럼 달려 가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진해네 학교에서 1교시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리는 순간, 이 가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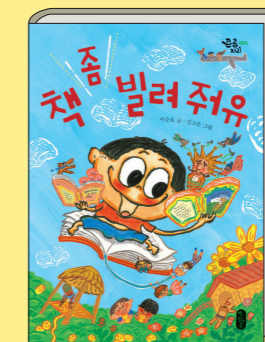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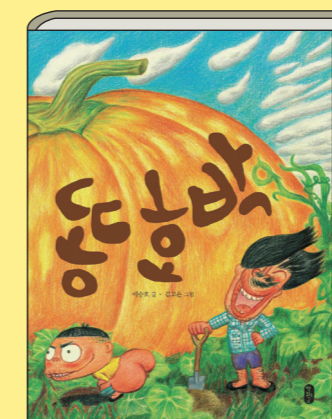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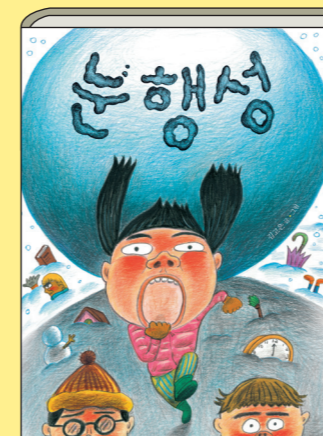
김고은

어린이처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고 또 살아갑니다. 그림과는 거리가 먼 수학과 학생이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졸업하자마자 다시 서양화과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기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며 두 번째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그림책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틈만 나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들여다보다 급기야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독일 부퍼탈 베르기슈 대학에서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의 그림 작가 볼프 에를부르흐 선생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쓰고 그린 그림책 《일어날까, 말까?》부터 《딸꾹질》, 《조금은 이상한 여행》, 《눈 행성》, 《우리 가족 납치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를 꼭 닮은 엉뚱한 상상력과 천진한 그림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림책 《쥐와 게》, 《소심왕 돌콩 날다!》, 《똥 호박》, 동화책 《책 좀 빌려 줘유》, 《도깨비, 파란 불꽃을 지켜라!》, 《말하는 일기장》, 《오메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린이·청소년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blog.naver.com/gonikoalla

### ★책읽는곰에서 펴낸 작가의 다른 책





**대상** 5세 이상  
**주제어** 가족, 휴식, 상상력

**감상 포인트** 학교도 학원도 다 잊고 마음껏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회사도 집도 다 잊고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은 어른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은 이런 아이와 어른 모두의 바람을 책 속에 서일망정 현실로 바꾸어 줍니다. 그림책 속 가족이 되어 이 느닷없는 휴가를 한껏 즐기고 나면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은 가족의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출근길부터 피곤한 얼굴을 한 아빠, 아이를 챙기느라 바쁜 아침이 두 배로 더 바쁜 엄마,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이……. 알고도 모른 척 해 온 가족의 고단함이 그림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 고단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불평이나 불만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은 세상에 없는 낙원으로 가는 여권이자 비행기 표입니다. 다른 준비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쳐 드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에 없는 그곳에서 신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우리 가족 납치 사건》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니?
2. 표지 그림 속 아빠는 당황한 얼굴이고 엄마는 겁먹은 얼굴이야. 하지만 아이는 어떤지 신이 난 것 같아. 이 아이는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3. 이 책을 만든 작가 이름이 뭐지? 이 작가가 만든 책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니?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출근하는 아빠 전일만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2. 출근 준비하는 엄마 나성실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3. 너도 전진해처럼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은 때가 있니? 주로 어떤 때 그런 기분이 드니?
4. 딱 하루만 네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니?
5. 너한테 신비한 힘이 생겨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한 가지씩 멋진 일이 일어나게 해 줄 수 있다고 상상해 봐. 그럼 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 줄 거야?

## 책놀이 1 숨은 그림 숨은 이야기 찾기

▶ 그림책의 한 장면 한 장면에는 주인공의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지요. 아래 그림에서 숨은 그림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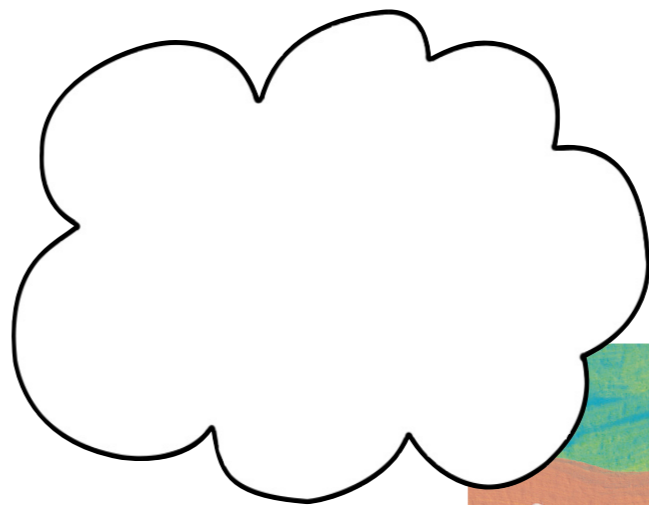
- ① 책 읽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표정을 보고 어떤 책을 읽는지 짐작해 봐요.
- ②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 ③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누구와 통화하고 있을까요?
- ④ 안경 쓴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을 구석구석 뜯어보며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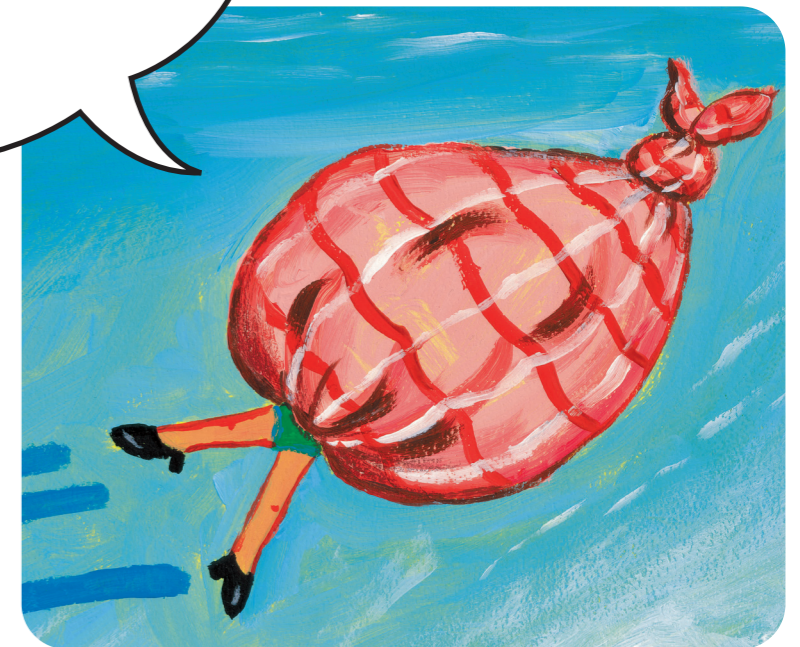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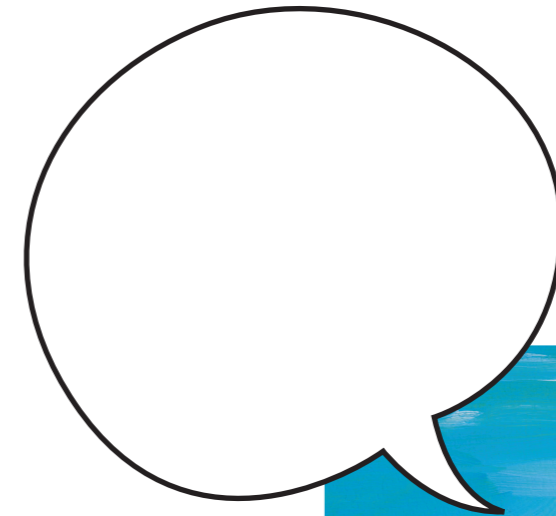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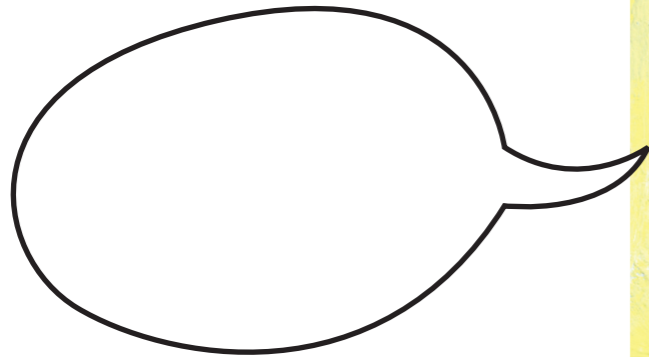
책놀이 2 **생각풍선 채우기**

▶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풍선을 채워 보아요.



책놀이 3 말풍선 채우기

▶ 엄마가 어떤 말을 했을지 말풍선을 채워 보아요.



## 책놀이 4 내가 꿈꾸는 가족 휴가

▶ 어떤 곳에서 어떤 휴가를 보내고 싶은지 그려 보세요.



책놀이 5 돌고래 만들기 / 텐트 만들기

▶ 진해가 바닷가에서 만난 돌고래를 만들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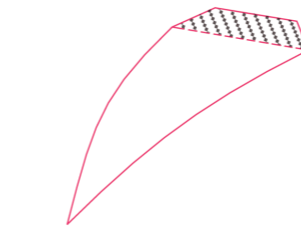


▶ 우리 가족이 휴가지에서 머무를 텐트를 만들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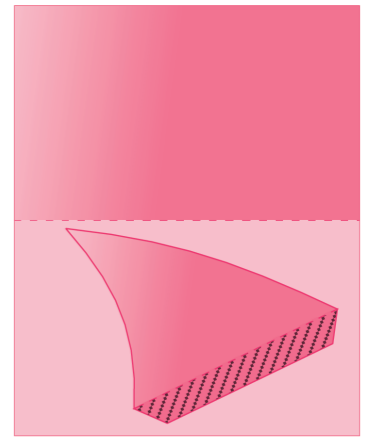


돌고래 도면

가슴 지느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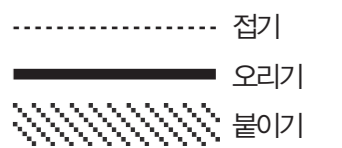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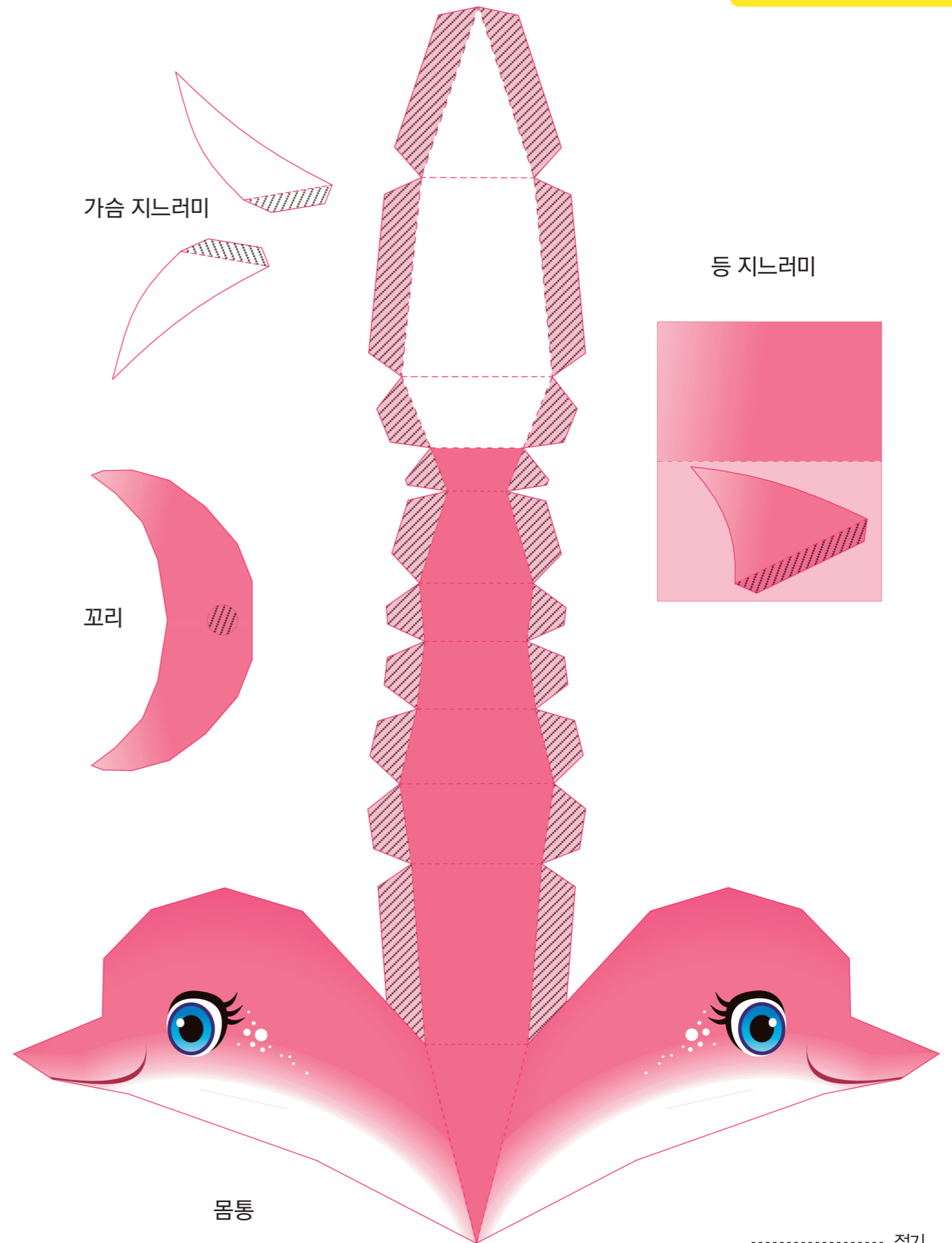
등 지느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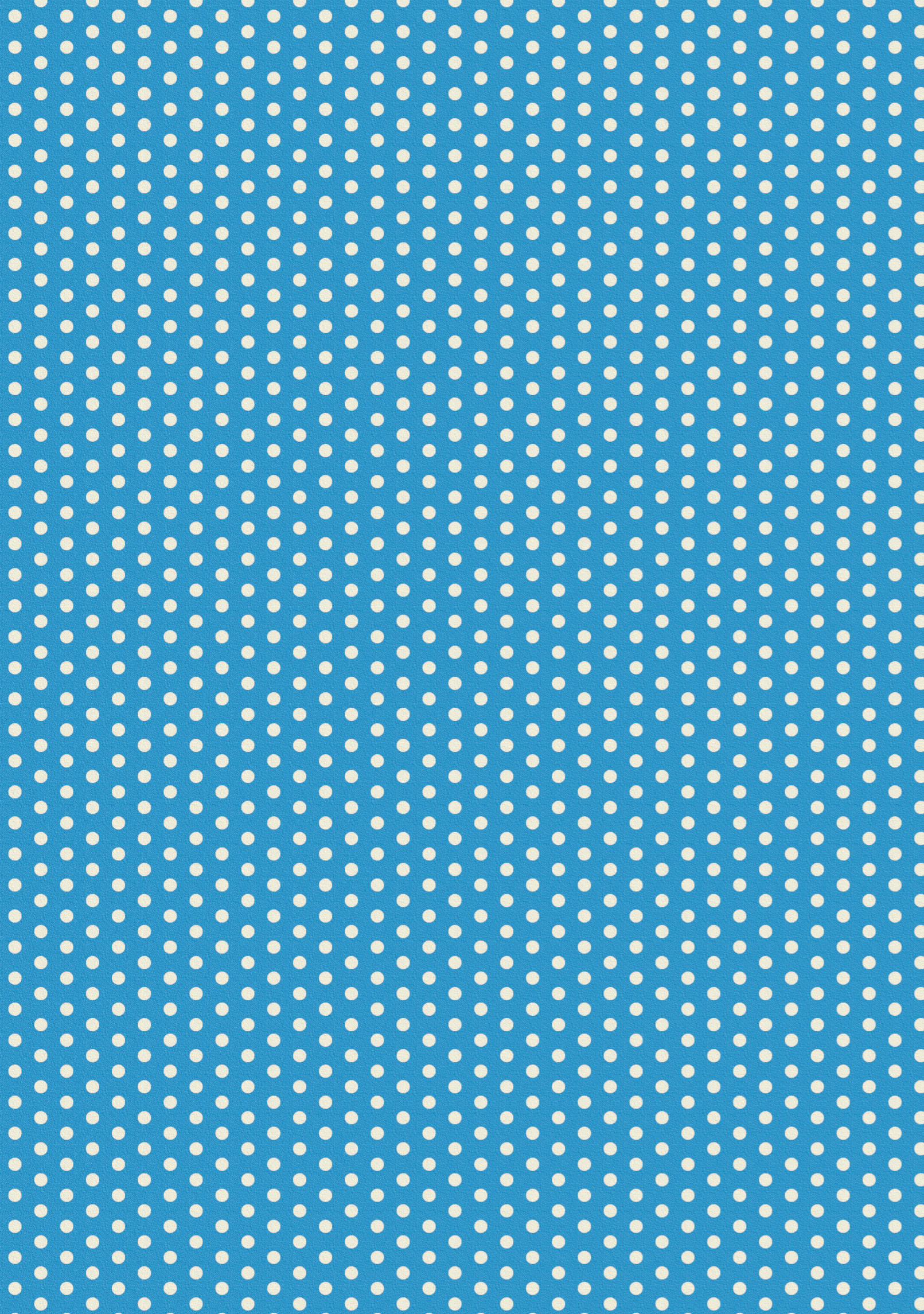
꼬리



몸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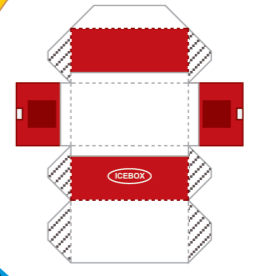
# 텐트 도면

- 접기
- 오리기
- ////// 붙이기
- ⊕ 뚫기



텐트

플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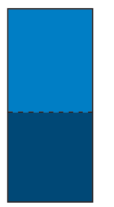


아이스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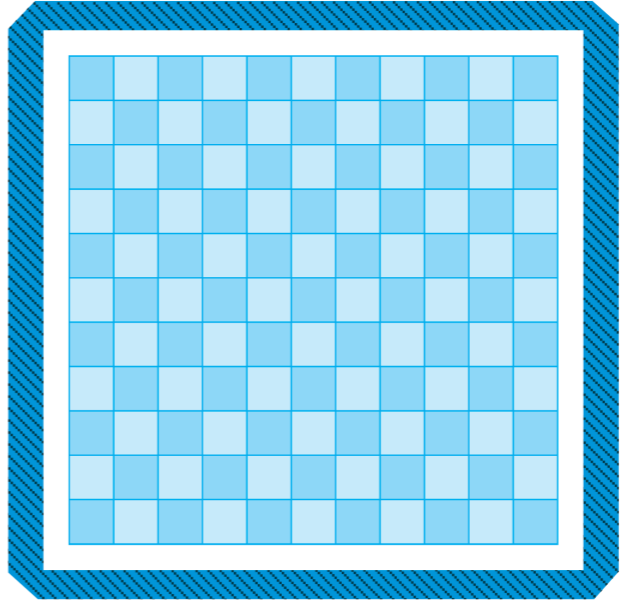
의자

의자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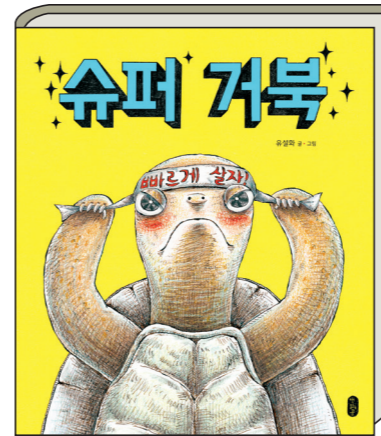
텐트 기둥

깔개





## 2016년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 도서



유설화 글·그림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들어 본 적 있나요? 거북이가 느리다고 알보다가 경주에서 진 토끼 이야기 말이에요. 그럼 토끼 코를 납작하게 만든 그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를 이긴 거북'이라니 텔레비전에 나올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벼락 스타가 된 그 거북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들려줄게요.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도서 | 경남독서한마당 선정 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 아침독서신문 추천 도서



유설화 작가의 시간



월월 씨는 아주아주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어른 개가 되자마자 비 오는 바닷가에 버려지고 말았지요. '다시는 사람 따위 믿지 않겠어.' 굳게 결심한 월월 씨는 밤낮없이 일해 으리으리한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월월 씨는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